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7.20.(수) 조간 2022.7.19.(화) 11:00	배포 일시	2022. 7. 19.(화) 06:00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종준 (044-200-5280)
		담당자	사무관 박선용 (044-200-5283)

국내 최대규모! 전천후 대형방제선 취항 - ‘엔담호’ 4m 파도에도 해양오염 방제 이상무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킬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취항식을 7월 20일(수)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엔담호는 ‘사방을 둘러싼 담’을 의미하는 순우리말로써 해양 유류오염 사고 시 담을 치듯 철저하게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엔담호의 취항은 지난 2007년 연말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부터 출발한다. 허베이스피리트호로부터 원유 약 1만톤이 유출되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초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 방제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악천후 속에서도 유류오염 사고 대응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방제선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에 5천톤급 규모의 대형방제선 건조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선박 건조를 시작한 이래 31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취항식을 가지는데 이르렀다.

엔담호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로부터 바다를 보호하면서 다양한 선박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목적에 맞춰 국내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선박으로 건조되었다.

기존 방제선(500톤급 미만)의 10배 이상 규모인 5천톤급으로 건조되어 풍랑주의보/경보 시에도 출동하여 작업이 가능하다. 5천톤 규모의 자체 저장능력을 이용하여 유류 저장용 부선의 지원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며, 선박 자체에 유출유 확산 예측 시스템을 탑재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울러, 2종의 기계화된 유류 회수 전용장치*와 별도의 유류 회수기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작업능력도 기존 방제선의 시간당 20~150kl에서 시간당 560kl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 스위핑 암(Sweeping Arm) : 선박 측면에 15m의 구조물이 팔처럼 설치되어 선박 진행시 유류 회수

* 빌트 인 스위핑(Built-in Sweeping) : 해면 기름을 회전 벨트로 흡수하여 회수

이와 함께, 최대 30m까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준설장비와 해상 부유물 제거가 가능한 크레인(최대 5톤), 120m 거리의 타선 소화설비 등 다양한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어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대형방제선인 엔담호를 중심으로 국가의 해양오염 방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환경과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방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고

엔담호 현황 및 주요 기능

□ 개요

- (건조 배경) 악천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대응력을 확보하여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
 - * 풍랑주의보 상황에도 신속한 방제 가능 (기존 150kℓ/hr 회수 수준 → 565kℓ)
- (사업내용) 총 사업비 745억원, 설계(18.8~19.7), 건조(19.8~22.5), 국비 100%, 해양환경공단,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1척

□ 주요기능

- 유류 회수 등 방제 시스템
 - 스윙핑 암(선박 측면 15m의 팔처럼 생긴 구조물, 선박 진행시 유류 회수)
 - 벨트 인 스윙핑(해면 기름을 회전 벨트로 흡수하여 저장)
 - * 회수유 적재량: 5,195m³ (전용탱크: 1,000m³, 준설토창: 4,195m³)
 - 오일펜스 : 자동팽창식 C형 300m × 2조
- 기타
 - (준설) 자항식 호퍼 : 준설훁과 토사 적재선 구분없이 준설과 적재를 동시 추진, 자력으로 투기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효율성 높음
 - * 최대 준설 깊이 약 30m, 준설 흡입 관경 약 900mm
 - 항해 장애물 수거 크레인 1기(작업 반경 20m, 인양하중 약 5톤)
 - 사고 선박 비상 예인 기능(약 5,000톤급 타선 예인)
 - 타선 소화설비(최대 소화 거리 120m, 시간당 2,400톤 방사)

< 선박 제원 >

- 총톤수, 길이×폭×깊이 : 5,566톤, 104m × 20.6m × 8.3m
- 항해구역 : 근해, 최대속력 : 13노트(knot)
- 승선인원 : 총 31명(승조원 22명, 기타 8명)
- 항속거리 : 8,000NM, 항해일수 : 약 20일
- 탱크용량 : 총 5,100m³, (방제전용) 약 1,000m³, (준설킴용) 4,100m³



* 주기관 : 현대힘센(4,000kW × 720 RPM, 2기) / 추진기 : 공스버그(2,400kW 전방향추진기, 2기)